





구 분	
열람·서명자	갈등관리심의위원 박수정 
	갈등관리심의위원 신종원 
확인자	갈등조정담당관 담당관 홍수정 
작성자	갈등조정담당관 행정6급 강윤애 

I·SEOUL·U

2018년 제1차

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

2018. 3.

서울혁신기획관
(갈등조정담당관)

2018년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8.3.15.(목) 10:00
- ◆ 장 소 :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2
- ◆ 참 석 : 총11명 (위촉직 9명, 간사 1명)
- ◆ 안 건
 - 2017년도 4/4분기 주요 갈등 현안 업무 보고
 - 2018 공공갈등 진단 사업 추진 현황
 - 2018 서울형 공론화 사업 추진 현황
 - 갈등저감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용역 결과 및 조치계획
 - 2018 갈등관리 역량 강화 추진 계획
 - 갈등관리 현안 사항 (00물류센터 신축 관련 갈등 조정 외 3건)
 - 2018년도 서울시 국제 갈등 포럼 관련 토론
- ◆ 회의결과
 - 공공갈등 진단 및 갈등 조정은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 민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.
 - 2018년도 주요 사업인 공론화 추진과 관련, 의제 및 운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6월 정례회의 시 결과 보고하기 바람.
 - 효과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서울시의 갈등 포럼 개최뿐만 아니라 해외 갈등포럼도 서울시에서 적극 참여함이 필요

□ 서울시 갈등 현안에 관한 사항

○ 2018 공공갈등 진단 추진 현황

- 2018 공공갈등 진단은 금년도 예산편성 사업 28건 외에 과년도 관리대상 사업 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등급 조정이 필요로 하는 29건도 진단 대상에 포함 하였으며,
-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전문가와 함께 실제적인 대응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.

○ 2018 서울형 공론화 사업 추진 현황

- 현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의제 발굴을 요청하였으며, 향후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시민 의견조사(엠보팅, 사이트 활용)를 통해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
- 4월 중 운영 업체 선정 계약을 공고하여 서울시, 위원회 및 전문가, 운영업체가 함께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. (6월 회의 시 보고 요함)
- 4.20 정책학회와 함께 공론화 의제 선정에 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.

○ 갈등저감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용역 결과

- 갈등저감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용역을 2.10일 완료하였으며, 용역 결과를 현실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로 관계 공무원 내부 토론회(3.22)와 시민대토론회(6월중)를 준비하고 있음.
- 내부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, 보완하여 필요 시 행정절차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.

○ 2018 갈등관리 역량 강화

- 온.오프라인을 통해 직원 대상 갈등 관리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, 특히 공론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.

□ 현안 토론 (2018 서울 국제 갈등포럼)

○ 포럼의 내용 및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안

-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, 이와 관련 의회 중심

의 공론화 제도가 정착된 벨기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며, 보다 상세한 자료 및 현황 청취를 위해 벨기에 관련 인사를 초청할 것을 제안함.

-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국내의 갈등 해소 사례를 해외에 전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.
- 포럼 개최 뿐만 아니라 해외 갈등 포럼 등에 갈등조정담당관이 참석하는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.

○ 4월 포럼추진단 회의 시 세션 운영 계획 제출 및 논의

- 2018 국제포럼은 7개 세션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, 해외 초청 인사에 대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항공료, 숙박비(2박)만 제공할 예정임.
- 세션의 주제, 운영 방법, 규모 등을 계획하여 추진단 회의 시 논의되었으면 좋겠음

서울특별시